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8월 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9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희 가족이 충실히 예배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가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열심히 전도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 최 행 례 -

지난 겨울, 저는 추운줄도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귀에 이어폰을 꽂아 찬송가를 들으며 교회를 오갔습니다. 주중에도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설교말씀을 듣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올해 2월초에 갑자기 감기가 찾아와 자주 병원 출입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교회에 가서 성전에 앉아 있으면 아픈 줄 모르고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몸이 아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마스크를 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 오늘은 저에게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묵상기도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폐에 가래가 많이 끼어 있다면서 자주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래를 뱉어내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른 새벽에 갑자기 객혈을 하였습니다. 기침과 함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음식 먹은 것이 잘못되었나 보다. 아까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럴 거야!’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다시 가래를 뱉어내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객혈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하고 큰딸은 한참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세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때가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이라 무척 피곤하여 곤히 자는 딸을 차마 깨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불안해서 할 수 없이 잠자는 딸을 깨웠습니다. 택시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음압병동 병실에 입원하여 2시간 동안 CT 촬영과 산소포화도, 혈압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무척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9년 전에 폐결핵을 앓아 왼쪽 폐가 많이 손상되고 결핵균이 오른쪽 폐에 진입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 때 너무 늦게 발견하여 나이가 들면 만성폐쇄성질환을 겪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제가 면역력 관리에 소홀했었나 봅니다. 교수님이 저의 왼쪽 폐의 기능이 69% 정도만 남아 있다면서 몇 개월치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처방해 주신대로 열심히 약을 먹는 과정에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호흡곤란과 혈액순환장애에, 식도염이 심해서 음식을 삼킬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숨이 차고 밥을 먹다가 곧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날은 심장이 막혀 호흡이 안 되는 줄 알고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검사를 받아봤지만 어떤 의사선생님도 원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관지가 좁아

져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호흡곤란이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약을 끊고 민간요법으로 객담 배출에 힘쓰며 운동과 영양 섭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먹을 때 보다 훨씬 더 몸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회에 연락하여 오래전에 복음지에 게재되었던 저의 간증문을 받아서 다시 읽어보며 스스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올케언니의 전도를 받고 스무 살 때 친언니를 따라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던 날, 막내 딸이 백일이 되어 당회장 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은 날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질병이 낫게 해주시고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그동안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전도하여 수 차례 전도상과 전도대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때를 떠올리며 감사드립니다. 제가 겪는 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상태가 호전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열심히 전도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구원받아 예배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고 특히 남편이 안수집사 직분을 받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1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30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2단원 :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제8과) 권능의 복음

- 본문 : 고린도전서 1:18-25
- 요절 :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 찬송 : 190장(새찬송가 258장), 197장(새찬송가 263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심을 보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십자가 형틀에 못박혀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자랑합니다(롬 1:16).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의를 옷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세상을 좇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상의 종교나 철학, 윤리와 같은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요 오직 권능의 복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고 전하는 ‘권능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히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우주 공간에 무수한 별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물론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종류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것입니다. 과연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을 능가할 존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천사가 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사실에 놀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독생 성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누가복음 1:26~38)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귀신들이 떠나갔고, 온갖 질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들도 살리셨으며, 바람과 물결을 명하시 잠잠케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으나 무덤에 장사된지 삼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복음입니다.

2.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앞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동일한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15~20)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루에 삼 천명 또는 오 천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면서부터 신체불구자가 되어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의 병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더니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초대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셨음을 여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복음의 권능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며 병든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우리로 능히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선교에 적극 동참합시다!”

비전 VISION 인터넷과 Mobile을 넘어 AI시대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한 Global선교 사역 감당

인터넷/스마트폰/온라인 방송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내외 동시예배 지원과 선교 지원

성도들의 영적 성장 도모

기도/물질 후원회원 50,000명 이상 확보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작 지원

교회내 IT Control Tower 역할 수행

전 성전 PC/Network 장비 및 Software 운영 지원



주요업무 Key responsibilities

정보통신선교회

- 방송통신선교 사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교회 각종 홈페이지 운영 및 개발
- 교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방송 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스마트폰용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송통신선교회

- 방송통신선교 사역 홍보
- 지성전별 방송통신선교회 운영
- GNTC TV 프로그램 홍보
- 방송통신선교후원회 운영 및 후원자 관리
- 인쇄, 방송, 스마트폰 등 매체별 활용을 통한 전도 사역

GNTC TV

-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관리
- 국내외 선교를 위한 방송 제작 지원

방송통신선교사역에 뜻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선교 기획
- 개발 (디자인, 프로그램, Ai, 네트워크)
- 방송 (카메라, 음향, 영상편집, 기획 등)
- 후원회 관리

[연락처] 031-443-3757

메일 : gntckorea@gmail.com

방문 : 투르스빌딩 7층 정보통신선교회 (각 성전 방송통신선교회)

